

【특집】

데리다의 텍스트

김 상 환*

【주제분류】 프랑스철학, 존재론, 문화철학

【주요어】 데리다, 텍스트, 상호텍스트성, 글쓰기, 해체론, 차이, 차연, 흔적, 규정

【요약문】 이 논문의 목적은 6단계의 절차를 통해 데리다의 해체론에서 텍스트의 개념이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를 설명, 평가하는 데 있다. 1)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먼저 고전적인 텍스트 개념의 어원적 의미와 그것을 둘러싼 은유적 친족관계, 이 개념의 주요 구성요소 등을 정리한다. 2) 후설, 잉가르덴, 수용미학 등의 텍스트 개념과 데리다의 텍스트 개념을 비교하여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를 밝힌다. 3) 현상학적 텍스트 개념과 구별되는 해체론적 텍스트 개념을 다시 바르트의 텍스트 개념과 비교하여 그것이 지닌 특징과 현대 문학이론과의 연관성을 드러낸다. 4) 데리다의 텍스트 개념에 함축된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대한 해체론의 계승관계 속에서 설명한다. 5) 상호텍스트성의 개념과 짝을 이루는 중층적 규정의 개념이 데리다의 텍스트 이론에서 흔적의 개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헤겔과 니체의 규정 개념이 차지할 수 있는 위상과 역할을 평가한다. 6)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데리다의 텍스트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흔적, 원초적 흔적, 쓰기, 원초적 기록, 차연 등의 개념이 지닌 의미를 정확히 설명한다.

* 서울대 철학과

텍스트는 외형상 아주 오래 전에 생겨난 개념이지만 내용상 이제 막 태어난 개념이다. 아마 오늘날 텍스트보다 더 전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은 드물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배치나 리쥘 등과 같은 개념은 이 새로운 텍스트 개념과 경쟁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인지 모른다.¹⁾ 이론적 사유의 모태인 철학은 예술의 죽음과 종교의 죽음을 초래했지만 20세기 사상사의 중요한 고비는 철학의 죽음에 있다. 저자의 죽음, 초월적 기의의 죽음은 그런 철학의 죽음, 더 넓게는 이론적 사유의 종언이 동반하는 하위의 사건들일 뿐이다.²⁾ 첨단적 의미의 텍스트는 이 모든 죽음과 더불어 다시 태어난 개념이다.

이런 사실에 주목할 때 두 가지 삼단논법을 생각하게 된다. 먼저 이 시대를 긍정하면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실험적 사유는 텍스트가 새롭게 분만하는 의미 균을 거점으로 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텍스트는 이 시대의 인문학적 상상력을 살릴만한 거의 유일한 개념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텍스트의 이런 특권적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의 죽음, 예술의 죽음, 주체의 죽음 등을 거느리는 철학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철학의 시대는 이념의 시대, 이론의 시대이다. 과격한 의미의 텍스트는 이론적 사유의 협소한 틀을 깨뜨리면서, 이색적인 차원을 열어놓으면서 등장하고 있다. 텍스트는 복잡하고 광활한 사유의 요구이다.

첫 번째 삼단논법은 오늘날 텍스트라는 말이 일반화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사실 이 시대에 텍스트는 과거처럼 언어적 사태만을

1) 데리다의 텍스트와 들뢰즈-가타리의 리쥘, 배치의 비교에 대해서는 즐고, 『들뢰즈의 CsO론』, 『안과 밖: 영미문학연구』제22호(2007년 상반기) 3절과 5절 참조.

2) 이 모든 죽음의 핵심은 일정한 '비판적' 거리 뒤에서 이론적 시각화의 대상이 되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대상화되는 데 있고, 그에 따라 다른 원천의 '근거'와 자명성 안에서 설명, 해석, 평가, 해소된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하여 즐저, 『해체론 시대의 철학』(문학과학지성사, 1996), 97-104면;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민음사, 1999), 5장 등 참조.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기형도의 『오래된 서적』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나의 영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누가 날 펼쳐 볼 것인가”³⁾), 존재하는 모든 사태가 텍스트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중요한 징후이다. 현대의 존재론적 상황은 존재자의 의미가 투명성을 상실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는 모든 존재자가 어떤 난해하고 책임 있는 해석을 요구하고 있음을 뜻하고, 그런 의미에서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는 그 자체가 텍스트이다.

두 번째 삼단논법은 텍스트의 상징적 지위가 성립하는 역사적 문맥을 설명한다. 이 문맥을 규정하는 것이 죽음 혹은 종언의 주제라면, 이 주제를 선도한 사조는 니체, 하이데거, 데리다로 이어지는 해체론이다. 하지만 해체론의 부상 때문에 철학이 종언을 맞이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전적인 철학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해체론이 부상하게 되었다. 이 시대의 역사-문화적 현실은 철학이나 형이상학의 전제들이 너무 단순하고 소박한 것으로 내려다보이기 시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이 철학이 맞이한 죽음의 실상이다. 이때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종류의 사유에 의해 상대화되고 대상화된다는 것을, 따라서 전제와 자명성을 빌려주던 자리에서 빌리는 위치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텍스트는 이런 전락의 거울이다.

I. 은유로서의 텍스트

이 두 가지 삼단논법은 상호 보충적이다. 이 점은 텍스트 개념의 일반화와 과격화를 주도한 데리다의 글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 많은 글들 중에서 먼저 텍스트의 어원과 은유적 기원이 언급되는 부분부터 읽어보자.

3)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서울: 문학과지성사, 1989), 25면.

(...) 로고스의 층위는 경험의 ‘보다 일반적인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다. (...) 언어 안에서는 순수하게 언어적인 것과 경험을 이루는 여타의 섬유들이 서로 얽혀 있고, 이 Verwebung(얽힘)은 하나의 직물(tissu)을 이루고 있다. Verwebung이란 말은 직물이라는 은유의 영역을 지시한다. 즉 ‘층위’들은 서로 ‘짜여’ 있고, 그 씨줄과 날줄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다. 만일 로고스의 층위가 단순히 ‘정초’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걷어내고 그 밑에 자리 잡은 비표현적 행위와 내용의 층위가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상층 구조가 역으로 본질적이고도 결정적인 방식으로 하위 층(Unterschicht)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지리학적 은유에 텍스트의 은유를 연계시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직물은 ‘텍스트’를 말하기 때문이다. Verweben은 여기서 textere를 의미한다.⁴⁾

이 구절은 후설의 『순수 현상학의 이념들 1』(1913) 124절에 대한 주석이다. 후설은 본질을 추구하는 철학자이다. 이 저서에서 그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뜻(Sinn)이다. 이 뜻은 표현(Ausdruck)을 통해 밖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표현을 통해 드러난 뜻은 그 이전의 뜻과 구분되어야 하고, 그래서 의미(Bedeutung)라 불린다. 이 의미는 로고스의 층위에 속하므로 당연히 보편성을 띠지만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이런 경험적 차이가 나타나는 층위는 표지(Anzeichen) 층이다. 이 층은 의미를 드러내는 표현 층과 대립적 관계에 있다. 표현 층은 선형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설의 의미론에서는 3가지 층이 설정된다. 먼저 경험적이고 심리적인 차원인 표지 층이 있고, 그 아래 선형적 차원인 표현 층이 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래에는 표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뜻 층(선-표현적 하위 층)이 있다.

테리다는 후설이 이 세 층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이 층위들을 가능하면 서로 구별하는 단계가 있다. 이는 경험적 영역에서 선형적 영역으로, 그리고 다시 순수한 본질(노에마)로 향하는 ‘환원’의 과정이다. 이 환원의 과정을 설명할 때 후설

4) J. Derrida, *Marges de la philosophie*(Paris: Minuit, 1972), 190-191면.

은 층이라는 지질학적 은유에 의존한다.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의 설명에서 이 세 층위의 상호 영향관계가 암시된다. 이런 암시는 지질학적 은유를 대신하는 새로운 은유를 통해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그 새로운 은유는 얽힘, 짜임, 직조 등과 결부된 직물의 은유이다. 하지만 이 두 은유는 서로 충돌한다. 즉 직물의 은유를 중시한다면, 앞 단계에서 설정된 구분법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후설의 현상학이 의도하던 목적은 ‘순수한’ 현전의 상태에 있는 본질과 관계하는 데 있다. 하지만 서로 구분되었던 의미론적 층위들이 정태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처럼 서로 꼬이고 얽혀서 직물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런 순수한 현전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순수한 본질의 현전은 그로부터 환원된, 따라서 거기에 부재하는 것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묻는 데리다의 주석은 두 종류의 은유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는 층이라는 지질학적 은유이고, 다른 하나는 직조와 얽힘이라는 직물의 은유이다. 텍스트는 직물의 은유에서 나온 말이며 그 어원은 짜다, 엮다 등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tech/tek*에 있다.(여기서 텍스트와 테크놀로지가 동일한 어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하지만 그 두 은유는 서로 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다. 직물의 은유는 층이라는 지질학적 은유의 품안에서, 그것을 보충하거나 대리할 필요성에서 태어났다. 사실 이는 후설의 문헌만이 아니라 다른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가령 현상학적 예술철학을 개척했고 수용미학이나 독자반응이론의 길을 처음 열어놓은 로만 잉가르덴의 대표작 『문예작품』(1931)⁵⁾이 좋은 예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문학작품을 여러 가지 지층들로 이루어진 지질학적 형성물로 간주하고 그 층위들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 소리로서의 말, 의미, 재현된 대상들, 도식적 측면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 중

5) R. Ingarden, *Das literarische Kunstwerk*, 2판(Tübingen: Niemeyer, 1960). 잉가르덴의 미학 일반에 대해서는 박상규, 『미학과 현상학』, 개정·증보판(서울: 한신문화사, 1997), 31-56면 참조.

잉가르텐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마지막의 도식적 측면이다. 이 측면은 ‘미결정성의 반점’이라 불린다. 아직 완결된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상학적 의미에서 문학작품이 어떤 ‘지향적 대상’일 수 있는 근거는 이 얼룩에 있다. 독자는 이 반점 앞에 설 때 어떤 요구에 직면한다. 그것은 독자적 해석에 대한 요구이다.

문학작품은 독자가 그렇게 요구된 독자적 해석을 감당할 때야 비로소 어떤 자기 동일성을 띤 미학적 대상으로 탈바꿈된다. 문학작품은 어떤 완결된 자기 동일성이나 미리 정해져 있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읽기와 해석을 기다리는 미결정성의 얼룩들을 핵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핵은 미학적 잠재력이 충전되어 있는 장소이고, 그 잠재력은 독서행위를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현실화된다. 하지만 그 현실화 과정은 정해진 노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독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이런 잉가르텐의 작품 개념은 현대적 텍스트 개념이 부화되는 중요한 장소이다. 문학작품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복수의 층위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자각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텍스트 개념은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텍스트 개념을 부추긴 보다 결정적인 요소는 미결정성의 반점에 있다. 말하자면 이 반점은 어떤 소용돌이다. 서로 구분되던 층위들은 이 소용돌이를 통해 역동성을 띠게 되고 마침내 서로 뒤얽혀 직물이 된다.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II. 쓰기, 읽기, 텍스트

이런 뒤얽힘을 촉발하는 것은 독서행위이다. 이 행위를 통해 작품을 구성하는 ‘내적’ 요소들은 ‘외적’ 요소들과 하나로 엮인다. 물론 그런 교직운동은 미결정성의 반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데리다 역

시 텍스트에서 그런 미결정성의 반점을 중시하고, 그 얼룩에 부응하는 독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독서는 언제나 작가에 의해 의식되지 않은 어떤 특정한 관계를 겨냥해야 한다. 작가가 스스로 사용하는 언어의 도식들 안에서 그가 통제하는 것과 통제하지 못 하는 것 사이의 관계가 문제이다. 이 관계는 빛의 음영, 힘의 강약에 대한 어떤 양적 분배가 아니라 비판적 독서가 ‘생산’해야 하는 의미화 구조(structure signifiante)이다. (...) 물론 독서는 텍스트를 중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독서는 텍스트를 넘어 그것과 다른 어떤 것으로, 어떤 지시대상(형이상학적, 역사적, 심리학적 및 자전적 실제 등등)으로, 혹은 그 내용이 언어 밖에서 성립했거나 성립했을 수도 있을 텍스트 밖의 기의[초월적 기의]로, 다시 말해서 기록 일반의 바깥으로 정당하게 초과해 갈 수 없다. (...) 텍스트의 바깥은 없다.⁶⁾

이 유명한 구절은 데리다가 루소의 문헌을 읽어 가는 과정에서 해체론적 독서의 ‘방법’을 언급하는 대목이다. 첫 문장은 해체론적 독서가 겨냥해야 할 대상을 말하고 있다. 그 대상은 ‘언어의 도식’이다. 이 도식은 잉가르텐이 말하는 ‘도식적 측면’이나 ‘미결정성의 반점’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데리다는 이 문장을 쓸 때 잉가르텐의 용어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의 깊은 독자라면 이렇게 물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대목은 데리다의 텍스트 개념이 잉가르텐의 작품 개념에 이중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먼저 두 개념이 공유하는 점을 분명히 하자. 그것은 텍스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방식에 있다.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독서의 과정이다. 데리다에 따르면, 독서는 저자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의미화 구조’를 생산하는 창조적 독서이다. 이 창조적 독서의 출발점은 어떤 언어적 도식이며, 이 도식은 작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다. 문제는 이 부분을 읽어내는 데 있다. 하지만 이 언어적 도

6) J. Derrida, *De la grammatologie*(Paris: Minuit, 1967), 227면. 진한 글자는 인용자 강조.

식에서 새로운 의미화 구조를 생산하는 독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데리다는 이 점에서 잉가르덴과 멀어진다. 문헌과 그 바깥 사이에 성립할 수 있는 모든 지시관계를 의심하기 때문이고, 그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지시대상(형이상학적, 역사적, 심리적 실재 등)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즉 텍스트의 바깥은 없다.

데리다가 이렇게 말하는 배후는 해석이 무한한 과제라는 믿음이다. 그 믿음에 따르면, 텍스트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태도 여전히 어떤 상징적 매개의 산물이고, 그런 한에서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사물의 영혼은 검은 페이지가 대부분이다. 사물의 내면은 이미 텍스트이다. 잉가르덴은 문학작품에서 ‘도식적 측면’이라는 제한된 층위 안에서만 미결정성의 반점을 보았다. 하지만 데리다는 텍스트가 재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적 대상 안에서도 유사한 얼룩을 발견한다. 나아가 순수한 현전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시대상들을 어떤 생산의 산물로 간주한다. 헤겔적 용어를 빌리자면 그 대상들을 생산하는 과정은 상징적 매개, 혹은 매개로서의 규정이나 종합이 될 것이다. 하지만 데리다는 그 과정을 기록 혹은 쓰기(écriture)라 부른다.

(…) 루소의 작품 너머에는, 그 작품의 배후에는 오로지 기록밖에 없었다. 있는 것은 오로지 대리적 보충물, 대체적 기능의 의미작용들 뿐이었다. 이것들은 변별적 차이관계에 있는 일련의 지시들이 만드는 사슬 안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 반면 ‘실제적인 것’은 단지 어떤 흔적이나 어떤 보충의 요구 등으로부터 의미를 취하는 가운데 비로소 출현하거나 덧붙여질 뿐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무한하다. 왜냐하면 ‘텍스트 안에서’ (…) 절대적 현전, 자연, ‘실제의 엄마’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 등은 언제나 이미 은밀한 장막에 가려 있고 결코 실존하지 않았다. 의미와 언어를 개방하는 것, 그것은 이런 쓰기다. 이 쓰기는 자연적 현전의 소멸에 해당한다.⁷⁾

이렇게 말하는 데리다는 초월적 기의나 실재를 단순히 부정하거나 무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발생하는, 하지만 그것의 배후

7) J. Derrida, 같은 책, 228면.

에서 잊혀진 ‘포괄적 구조’와 문맥 안에 다시 위치시키고 있을 뿐이다. 데리다는 이 포괄적 구조를 다시 텍스트라 부른다. 이때 텍스트는 당연히 그 이전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제 텍스트는 “하부구조라는 의미의 텍스트(texte, au sens infrastructural)”이며, 이 텍스트의 본성은 생산에 있다. 즉 텍스트는 쓰기, 읽기, 지식 등을 동시에 생산하는 체계이다. “우리가 생산이라 부르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텍스트이다. 그것은 어떤 쓰기, 어떤 읽기 (...) 그리고 어떤 앎을 하나로 묶는 체계이다. (...) 이 쓰기와 읽기는 각기 자신에 고유한 맹점, 보이지 않는 얼룩(tache aveugle) 주위에서 일정한 질서를 얻는다.”⁸⁾

문화적 현실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징적 매개의 산물이다. 모든 것은 쓰기와 읽기를 통해, 다시 말해서 해석을 통해 생산된 결과이다. 해석은 언제나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맹목의 반점에 의해 유인된다. 하지만 그 반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매개는 언제나 불완전한 매개이다. 쓰기와 읽기는 미결정성의 반점과 씨름하지만 언제나 다른 장소로 옮겨놓거나 감출 뿐이다. 그 불투명한 반점은 자리를 바꾸되 지워지거나 해소되지 않는다. 쓰기, 읽기, 지식은 그런 미결정성의 얼룩을 실어 나르는 은유적 대체이거나 환유적 이동이다. 텍스트가 쓰기, 읽기, 지식을 생산하고 다시 하나로 묶는 체계라면, 그 얼룩은 그 체계의 배꼽이다.

데리다는 그런 얼룩을 다시 대리적 보충(supplément)이라 부른다. “루소의 문헌 안에서 대리적 보충의 개념은 일종의 맹점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가시성(可視性)을 열어놓고 또 제한한다.”⁹⁾ 대리적 보충은 텍스트의 비밀에 해당하는 ‘맹점’을 번역하기 위해서 루소에게서 빌린 용어이다. 이 번역어는 여전히 잉가르텐의 ‘미결정성의 반점’을 옮기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번역과 이동을 통해 데리다가 도착하는 곳은 전혀 새로운 지반이다.

8) J. Derrida, 같은 책, 234면.

9) J. Derrida, 같은 책, 234면.

Ⅲ. 책, 작품, 텍스트

이 새로운 지반 안에서 작품이라는 말은 화석화된다. 예전에는 작품과 텍스트가 거의 비슷한 말로 사용되었지만, 데리다나 그가 한 때 참여했던 텔 켈(Tel Quel) 그룹의 동인들(크리테바, 솔레르스, 바르트 등)에게서 그 둘은 반대말에 가깝다. 그래서 작품이 어떤 안정되고 중심화된 전체를 가리킨다면, 텍스트는 닫히지 않는 의미화 회로와 무한정한 생산적 유희, 그 유희를 통한 의미의 과잉 등을 지시한다. 하지만 데리다는 텍스트를 작품이 아니라 책에 대립시킨다.

책의 관념은 어떤 기표의 총체성, 유한할 수도 있고 무한할 수도 있는 총체성의 관념이다. 이 기표의 총체성이 어떤 총체성으로서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어떤 다른 총체성, 기표로 구성된 총체성이 그보다 먼저 존재해야만 한다. 이 기표의 총체성은 기표의 기입과 기호작용들을 감시하되 기표와 독립하여 자신의 이상성 안에 존재한다. 언제나 자연적 총체성을 지시하는 책의 관념은 글쓰기의 의미에 대해 대단히 이질적이다. 그것은 쓰기의 일탈과 경구적 에너지에 반하여, 나아가 차이 일반에 반하여 신학과 로고스중심주의를 지키는 백과사전적 보호막이다. 만일 우리가 책으로부터 텍스트를 구분한다면, 오늘날 도처에서 천명되고 있는 책의 파괴는 텍스트의 표면을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⁰⁾

책의 종언을 선언하는 이 대목을 읽기 전에 텍스트를 작품에 대립시키는 바르트를 먼저 참조하자. 특히 참조해야 할 중요한 매개 항은 저자 개념이다. 사실 전통적으로 저자는 창조자 신에, 작품은 신이 창조한 우주에 비유되었다. 이런 비유에 따르면 작품은 저자의 사유 안에 먼저 있었던 기표의 총체성에 근거한다. 작품은 그 기표의 총체성을 재현하는 기표의 총체성이다. 이 총체성의 공간은 동질적이며 단일한 중

10) J. Derrida, 같은 책, 30-31면.

심을 지닌다. 반면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와 무관한 일탈적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다양한 관점,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함께 엮이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르트의 관점에서 작품의 종언은 저자의 죽음과 맞물려 있고, 그 저자가 물러간 자리에 등장하는 것은 독자이다. 텍스트의 탄생은 독자의 탄생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한 텍스트는 다양한 글쓰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복수의 문화들에서 유래한다. (...) 그러나 이런 다양성이 하나로 모이는 장소가 있다. 하지만 이 장소는 저자가 아니라 독자이다. 독자는 글쓰기를 이루고 있는 모든 인용들이 조금도 상실되지 않은 채 기입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한 텍스트의 통일성은 그 기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에 있다. (...)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을 대가로 한다.¹¹⁾

텍스트의 통일성이 저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자에 의해 성립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바르트는 잉가르텐과 그 이후의 수용미학자들과 일치한다. 하지만 독자란 누구인가? 이 물음에서 그들은 달라진다. 잉가르텐은 현상학자로서 작품의 의미를 저자의 심리적 상태나 개인사로 환원하는 태도에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독서의 주체도 경험적 주체가 아닌 현상학적 지향의 주체, 선험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데카르트적 주체이다.

바르트적 의미의 독자도 어떤 인격적 주체도, 심리적 주체도 아니다. “독자는 역사 없는 인간, 전기(傳記) 없는 인간, 심리 없는 인간이다. 그는 단지 글을 구성하는 모든 흔적들을 하나의 같은 장(場) 안에 회집하는 어떤 아무개(on)일 뿐이다.”¹²⁾ 하지만 독자는 이제 데카르트적 코기토마저 아니다. 텍스트의 시대를 여는 독자의 탄생은 근대적 주체의 재탄생이나 휴머니즘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근대적 주체의 죽음, 휴머니즘의 종언을 의미한다. 근대적 주체와 그것을 핵으로 하는 휴머니즘은 저자와 더불어 죽음을 맞이한다.

11) R. Barthes, *Le bruissement de la langue*(Paris: Seuil, 1984), 66-67면.

12) R. Barthes, 같은 책, 67면.

바르트는 이런 저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다시 글쓰기의 시작을 본다. “저자는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임한다. 글쓰기가 시작한다.” “말하는 것은 언어이다. 결코 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쓴다는 것, 그것은 (...) 선행의 비인격성을 통과해서 ‘자아’가 아니라 오로지 언어만이 행동을 ‘수행’하는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이다.”¹³⁾ 바르트적 의미의 글쓰기는 심리적 주체의 재현적 행위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순수한 언어적 사건이다.

이 사건 안에서 볼 때 언어는 기의를 위해 있는 기표도, 심리적 내면을 재현하는 도구도 아니다. 언어는 오로지 언어를 위해서, 언어로서 이어지고 실행되기 위해서 있다.¹⁴⁾ 여기서 행동의 주체는 기의도, 지시대상도, 주체도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언어일 뿐이다. 이런 자기 실행적인 언어, 수행성에 도달한 언어에 견줄 때 쓰기와 읽기의 구별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 둘은 수행적 언어가 자신의 수행성을 실현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유사한 언어관을 공유하는 데리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언어적 사태의 배꼽에서 어떤 수행적 구조(structure performative)를 발견한다. “모든 사실 확인적 명제는 그 자체가 어떤 수행적 구조, 적어도 암묵적인 수행적 구조에 의존한다.”¹⁵⁾ 이런 발견 이후 수행적 언어와 비수행적 언어의 구분은 무의미할 것이다. 비수행적 언어는 이미 수행적 언어의 귀결이기 때문이다. 바르트와 데리다가 말하는 읽거나 쓰기는 언어가 이런 수행적 구조를 드러내는 사건, 오로지 언어만이 행동을 수행하는 사건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데리다는 이런 의미의 글쓰기를 책의 관념에 대립시키는가 하면 또한 그것을 텍스트의 도래와 결부시키고 있다. 그

13) R. Barthes, 같은 책, 61, 62면.

14) 이 점은 바르트를 떠나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언어의 핵심적 성격이다. 이에 대해서는 줄저,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창비, 2002) 2부 1장 1절 참조.

15) J. Derrida, *Force de loi*(Paris: Galilée, 1994), 59면.

이유는 바르트가 읽거나 쓰기를 작품이나 저자에 대립시키는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책의 관념은 언어를 이미 확립된 기의의 총체성을 재현하는 위치에 둔다. 반면 글쓰기는 읽기와 마찬가지로 선행의 의미를 재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화 구조를 생산하는 행위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어떤 수행적인 행위이다.

여기에 덧붙여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읽기와 쓰기가 언어의 자기 수행적인 행위임을 말할 때 이들이 이해하는 언어적 수행성은 현대 영미 철학자들이 파악하는 것과 다른 뉘앙스를 띤다는 점이다. 가령 데리다는 오스틴(Austin)과 쉘(Scarle)을 의식하면서 이렇게 적는다. “만일 (...) 위험을 무릅쓰고 해체론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간단하고 생략적이며 슬로건이나 구호 같이 경제적인 단 하나의 정의를 내린다면, 나는 간단명료하게 ‘하나의 언어 이상으로(plus d'une langue)’라 하겠다.”¹⁶⁾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복수적이고 이산적인 언어를 생산하는 것이다. 해체론은 여럿의 언어들을 생산하는, 따라서 하나의 언어 안에 그 이상의 차원을 기-입하는 읽기이자 쓰기이다. 하지만 “이 읽기는 ‘우리의’ 읽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텍스트 자체에 의해 제공된 언어적 요소들만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저자와 독자의 구별은 잘못된 구분법이며, 이는 읽기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해체는 우리가 텍스트에 덧붙인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무엇보다 먼저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다.”¹⁷⁾

이 말에 따를 때 모든 텍스트 안에는 해체 혹은 탈-구성(déconstruction)이 내재한다. 해체는 텍스트의 구성요소로서 그 안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텍스트는 이미 해체론적이다. 하지만 이런 해체론적 구조를 노출할 때 텍

16) J. Derrida, *Mémoires pour Paul de Man*(Paris: Galilée, 1988), 38면. 여기서 ‘plus d'une langue’는 ‘언어 이상의’, ‘언어보다 더한’ 등으로도 새길 수 있을 것이다.

17) Paul de Man, *Allegory of Reading*(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17면.

스트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담론보다 포괄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다 일반적이다. 그 “텍스트는 (...) 이론적이거나 개념적인 담론의 한계를 ‘실제로’ 기록하면서 동시에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담론과 (...) 그 질서가 초과되는 모든 곳에는 그런 일반적 텍스트가 있다.”¹⁸⁾ 데리다의 해체론은 이론적 담론을 자신의 일부로 기록하고 번역하면서 이어지는 그런 일반적 텍스트를 드러내는 작업, 읽기와 쓰기의 작업이다. 하지만 데리다적 의미의 ‘일반적 텍스트’란 무엇인가?

IV. 텍스트에서 상호 텍스트성으로

우리는 앞에서 텍스트와 해체론이 상호 규정적 관계에 놓이는 지점에 이르렀다. 데리다의 이야기는 이 지점에서부터 어려워진다. 이 이후의 여정은 텍스트의 존재론적 일반화와 과격화로 향하고 있다. 이 여정의 출발에 있는 직관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 그것은 “모든 존재론적 사건은 탈-언어학적 사건이다”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모든 사건은 일단 언어학적 사건이면서 언어학의 한계를 넘어서나. 이는 또 이런 말과 같다. 모든 사건은 일단 개념적으로 매개되고 구성되는 사건이면서 개념적 사유의 한계를 넘어서나. 모든 사건은 일단 형이상학적 사건이면서 형이상학적 사유를 넘어서나. 해체는 그런 이중의 운동에 대한 명칭이고, 일반적 텍스트는 그런 해체의 이중운동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장소이다. 하지만 해체의 이런 이중운동은 모든 존재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반적 사건이고, 따라서 존재자는 이미 모두 어떤 텍스트이다.

18) J. Derrida, *Positions*(Paris: Minuit, 1972), 81-82면. 데리다가 이 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포우의 소설이 그 소설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재단하는 라캉의 무의식 이론을 이미 자신 속에 포함하고 또 넘어서고 있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인용된 줄거,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 1부 3장 2절 참조.

“해체는 모두 ‘탈-전유’(ex-appropriation)의 운동들이다.”¹⁹⁾ 이 말도 단순히 해체론에 대한 정의라기보다 텍스트로서의 존재자 일반에 대한 정의일 수 있다. 해체는 고유한 정체성(개념적이거나 상징적인 정체성)의 획득과 박탈을 동시에 가져오는 이중적 리듬이다. 이런 해체의 리듬은 모든 존재자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 데리다의 중요한 용어인 차연과 흔적은 그런 해체의 리듬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자 안에는 그것을 있게 한 차연이 있다. 하지만 존재자를 있게 하거나 없게 하는 차연은 존재자처럼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다. 차연은 존재자처럼 현전하거나 부재하지 않는다. 현전도 부재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차연은 흔적이다.²⁰⁾ 모든 현상은 흔적으로서의 차연, 차연으로서의 흔적에 의해 비로소 나타나거나 사라진다. “흔적은 나타남과 의미작용을 개방하는 차연이다.”²¹⁾

차연인 흔적, 혹은 흔적인 차연. 이것이 해체론이 가리키는 궁극의 탈-형이상학적 사태이고, 그런 한에서 해체론은 “흔적의 사유”²²⁾이다. 이 흔적의 사유는 『그라마톨로지』 전반부에서 소쉬르의 언어학에 대한 주석의 형태를 취하면서 정교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난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부분에 눈을 맞추기 전에 한 번 더 예비적 독서의 기회를 가져보자. 아래의 긴 인용문은 프로이트의 쓰기 개념에 대한 데리다의 주석인데, 이 주석은 그의 텍스트 개념의 마지막 국면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19) J. Derrida, *Limited Inc.* (Paris: Galilée, 1990), 261면.

20) J. Derrida, *De la grammatologie*, 92, 95면 참조.

21) J. Derrida, 같은 책, 95면. 여기서 차연(différance)과 동의어인 ‘흔적(trace)’은 앞의 2절(각주 6)에서 인용된 문장 “의미와 언어를 개방하는 것, 그것은 이런 쓰기이다”의 ‘쓰기(écriture)’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 개방성의 기원에 있는 이런 흔적과 쓰기는 다시 ‘원초적 흔적(archi-trace)’과 ‘원초적 기록(archi-écriture)’이라 불린다. 데리다의 원초적 흔적이거나 쓰기는 어떤 원초적 규정이나 종합(혹은 생성)을 의미하며, 이 점은 아래 6절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22) J. Derrida, 같은 책, 142면.

프로이트에게 텍스트는, 그것이 원초적인 형식이든 변형된 형식이든, 어떠한 현전의 형식 안에서도 생각될 수 없다. 텍스트는 이미 순수한 흔적들로 엮여 있으며, 의미와 힘이 하나가 되는 차이들로 짜여 있다. 텍스트는 그 어디에도 현전하지 않으며, ‘언제나 이미’ 전사(轉寫)인 기록들(archives)로 구성되어 있다. (...) 모든 것은 재생산에 의하여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이미, 결코 현전했던 적이 없는 의미의 침전물에서 시작한다. 그 의미에 대하여 지시된 현전(le présent signifié)은 언제나 뒤늦게 사후적으로(nachträglich, après coup), 보충을 통하여(supplémentairement) 구성된다. 즉 ‘사후적’이라는 것은 또한 ‘대리적 보충’을 말한다. 대리적 보충에 대한 호소는 여기서 근원적이며, 우리가 현전적인 것으로서 뒤늦게 재구성하는 것에 헛헛한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 (...) 이 대리적 보충의 논리 안에서 사후성의 가능성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다. Nachtrag은 또한 (...) 부록, 유언 추가서, 후기(後記) 등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에 주목하자. 현전적이라 불리는 텍스트는 오로지 페이지 아래쪽에서, 각주나 후기 안에서만 해독될 수 있다. 이런 회귀(回歸) 이전에, 현전적인 것은 각주를 부르는 신호에 불과하다. 현전성 일반은 원초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재구성되는 것이라는 점, 그것이 경험의 절대적 형식도 아니요 경험을 구성하는 충만하게 생성한 형식도 아니라는 점, 살아 있는 순수한 현전성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바로 그런 점들이 프로이트가 사대 자체에 부합될 수 없는 개념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도록 요청하고 있는 주제, 형이상학의 역사에 대하여 무시무시한 의미를 지니는 주제이다. 아마 이 주제에 대한 사유야말로 형이상학 혹은 과학 안에서 결코 다 길어낼 수 없는 유일한 사유인지 모른다.²³⁾

프로이트는 심리적 과정 일반을 기록의 과정으로 간주하곤 했다. 가령 감각기관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기록장치로, 기억은 기록의 흔적을 보존하는 장치로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상반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장치가 맞물려 하나의 단일한 기록체계를 이루는 것인지 고심했다. 위의 인용문은 데리다가 이 고심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적은 문장이다.

프로이트는 정신을 복수적 층위의 체계로 파악한다. 여기서 심리적 체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층위는 상호 갈등과 상호 규정의 관계에 있

23) J. Derrida, *Ecriture et différence*(Paris: Seuil, 1967), 314면.

다. 위의 인용문에서 텍스트는 그런 상호 규정의 관계에 있는 각각의 심리적 층위를 가리킨다. 심리적 과정 일반이 어떤 기록의 과정이라면, 서로 다른 본성과 경향을 지닌 심리적 층위들 각각은 그 기록이 일어나는 텍스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텍스트들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텍스트는 이미 상호 텍스트성을 띠고 있고, 한 텍스트에서 일어나는 규정은 언제나 ‘중층적 규정’²⁴⁾이다.

이런 중층적 규정의 세계에서 한 텍스트의 기록은 다른 텍스트의 기록이 남긴 흔적들에 힘입어 분절화된다. 하나의 기록은 다른 기록들에, 하나의 흔적은 다른 흔적들에 빚지면서 나타난다. 상호 텍스트성과 중층적 규정을 중심으로 파악된 텍스트. 그것이 데리다가 말하는 ‘일반적 텍스트’가 아닐까? 하지만 데리다는 여기서 다시 섬세한 관찰을 요구한다. 하나의 기록을 분절화하고 일정한 형태를 띠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다른 기록이 남겼던 흔적이라면, 그 분절화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문제는 잠시 미루어 두자. 하지만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떤 일정한 형태의 자국을 분절화하는 그 배후의 흔적들 각각은 그 자국과 동일한 조건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들이 일정한 형태의 흔적일 수 있는 가능조건은 여전히 또 다른 흔적들에 있다. 이런 소급적 관계는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 기록이 일어나고 있는 텍스트는 결코 현재화하거나 현전화할 수 없는 흔적들과 함께 엮여 있다. 흔적이란 “현재의 단순성 안으로 수렴되지 않는 것”²⁵⁾이다. 그러므로 그런 흔적들에 힘입어 비로소 일정한 형태를 얻는 기록과 텍스트는 결코 현전의 형식 안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 텍스트 안에서 현전적 사태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사후적으로

24) 프로이트적 의미의 중층적 규정(Überdeterminierung)에 대해서는 *Die Traumdeutung*, Gesammelte Werke II/III(Frankfurt am Main: Fischer, 1942), 224, 575면 등 참조.

25) J. Derrida, *De la grammatologie*, 97면.

구성된 결과에 불과하다. 가령 과거는 미래에 의해 사후적으로 구성되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미래보다 늦게 온다. 원인은 결과에 의해 소급적으로 성립되고, 그런 의미에서 원인은 결과 뒤에 발생한다. 이것이 프로이트가 병인(病因)과 ‘원초적 장면’ 등을 지배한다고 보는 사후성의 논리다. 원초적 장면은 발병의 원인이지만 발병 상황에 의해 보충되고 구성되는, 따라서 발병보다 늦게 오는 사건이다. 이 사후성의 논리 안에서 원초적인 것과 파생적인 것, 현전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 과거에 있는 것과 미래에 있는 것은 서로의 가능성을 조건짓는다. 사후적 시간성의 세계인 텍스트에서 순수한 현전은 불가능하며, 나아가 형이상학적 이항대립 역시 불가능하다.

V. 흔적으로서의 규정, 종합, 분절화

텍스트 안에서 그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원초적인 기원만이 아니다. 여기서는 개체나 유(類)가 지니는 정체성 또한 안정된 기반을 잃어버린다. 텍스트 안에서 정체성이나 규정성을 지닌다는 것은 책으로 상징되는 형이상학적 세계에서와는 전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모든 정체성은 순수한 투명성과 충만한 현전성을 잃어버린다. 데리다의 텍스트론에서 흔적의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규정성을 띤 모든 것은 흔적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데리다의 흔적 개념으로 이어지는 배후의 역사적 이정표, 가령 어떤 짙막한 규정 개념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상호 텍스트성을 함축하는 프로이트의 중층적 결정이라는 독특한 규정 개념은 이미 이런 역사적 재구성을 유인하고 있다. 이 역사적 재구성의 첫머리에 와야 하는 것은 헤겔의 규정 개념일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규정은 부정”이라는 헤겔의 공리는 이미 형이상학적 존재 이해의 핵심(존재자의 실체성, 현전성)을 깨뜨리는 파괴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헤겔의 공리는 한 사물의 규정성이 그 사물이 다른 사물들과 맺는

대립이나 차이의 관계에서 성립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물들과 무관하게 그 사물이 지닐 수 있는 자기 동일성이나 정체성은 없다는 것이고, 그런 고립된 정체성을 근거짓는 초월적 원리(가령 본질, 형상, 이데아 등)는 가상임을 말한다. 이 공리는 실체의 존재론에 대한 거부와 순수 관계의 존재론을 향한 전환을 함축한다. 인식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도 모든 한정된 규정성은 차이관계의 산물이자 흔적에 불과함을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물의 실체적 내면성이나 대자적 자립성은 그 사물에게 특정한 정체성을 선물하는 타자와의 관계 속으로 환원, 해소되어버린다.

사물은 오로지 다른 사물들과 이런 관계 속에 놓이지 않는 한에서만 어떤 사물일 수 있거나 대자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일자(一者)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것은 어떤 다른 사물과의 연관성(Zusammenhang)이고, 다른 사물과 연관된다는 것은 대자적 존재방식[=대자적 내면성과 자립성]을 멈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물은 정확히 바로 자신의 절대적 성격과 [다른 사물들과의] 대립으로 인하여 다른 사물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또 본질적으로는 오로지 이러한 관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사물의 독립성에 대한 부정이고 사물은 자신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파멸에 이른다.²⁶⁾

모든 규정은 부정이라는 헤겔의 공리는 20세기 구조주의를 낳은 소쉬르의 차이의 원리(“언어에는 차이밖에 없다”)와 동일한 존재론적 함축을 담고 있다. 이 둘은 모두 실체적 동일성의 신화를 깨고 차이의 존재론과 관계의 존재론을 향한 힘찬 도약의 디딤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겔주의와 구조주의는 아직 책의 시대를 완전하게 벗어나 텍스트의 시대를 열지 못했다. 왜 그런가? 이는 차이관계를 모든 규정적 단위의 기원에 놓되 그 관계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조화로운 전체를 이룬다는 대전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차이관계는 요소들 간의 공존 가능성, 라이프니츠적인 의미의 공-가능성

26) G.W.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Hambourg: Felix Meiner, 1952), 98-99면.

(*compossibilité*) 안에서 성립한다. 차이의 유희가 가져오는 활력은 유기체적 통일성 안으로 수렴된다. 텍스트의 세계는 목적론적이거나 유기체론적인 조화, 구조주의적 안정성이 깨지면서 열린다.

들뢰즈가 말했던 것처럼 헤겔의 차이는 디오니소스적 차이를 흉내내는 아폴론적 차이인지 모른다. 차이의 유희를 공-가능성의 제약에서 해방한 것은 니체였다. 아폴론적 차이에서 디오니소스적 차이로. 이것이 니체에게서 일어나는 전환이다. 이런 전환과 더불어 규정의 개념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헤겔에게 모든 규정이 부정이라면, 니체에게 규정은 언제나 낱조이다. 왜곡하고 낱조하는 해석,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는 해석. 이제 그런 해석이 규정이다.

진리애의 의지란 고정성을 낱조하는 것(*ein Fest-machen*), 참됨으로서의 지속성을 낱조하는 것, 저 거짓 성격을 모른 척 도외시하는 것, 그 낱조된 성격을 존재하는 것 안으로 바꾸어 해석하는 것(*Umdeutung*)이다. 그러므로 진리란 어디엔가 있다가 찾아지고 발견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창조되어 할 어떤 것이다. (...) 진리를 포착한다는 것은 어떤 능동적인 규정(*aktives Bestimmen*)이지 그 자체로 고정되고 규정되어 있을 어떤 것에 대한 의식화(*Bewußtwerden*)가 아니다. 그것은 ‘힘의 의지(*Wille zur Macht*)’를 나타내는 어떤 말이다.²⁷⁾

니체의 철학에서 존재자로서의 존재자가 힘(에)의 의지로서 정의된다면, 이 힘(*Macht*)은 서로 우월성을 다투는 하위의 힘들(*Kräfte*) 간의 창발적인 종합과 창조적인 변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게 종합되는 각각의 힘은 자신을 관철하고자 하는 어떤 해석의 관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서로 갈등하는 해석의 관점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상위의 관점을 창조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그런 이유에서 그것은 어떤 가상에의 의지(*Wille zum Schein*)와 동의어가 된다. 니체가 “예술은 진리보다 더 한층 가치가 있다”²⁸⁾고 선

27) F. Nietzsche, *Der Wille zur Macht*(Stuttgart: Kröner, 1964), 552항, 377면.

언하는 것은 진리라는 것도 역시 창조적 규정을 추구하는 가상의 의지가 남기는 산물에 불과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가상의 의지, 환상에의 의지, 허구에의 의지, 생성과 변전에의 의지가 여기서는 진리에의 의지, 현실에의 의지, 존재에의 의지보다 한층 더 깊고 한층 더 근원적이며, 한층 더 형이상학적인 위치에 있다. 후자의 의지는 그것 자체로 단지 환상에의 의지의 한 형식에 불과하다.”²⁹⁾

우리는 헤겔의 규정 개념에서도 가상(Schein)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헤겔의 본질은 가상화된다는 조건에서만 현상(Er-schein-en)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현상학』에서 자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규정은 진리를 대신하는 사례들의 연극적 장면화(Bei-spielen, Darstellen)에서 완성된다.³⁰⁾ 진리는 소멸하는 사례들의 행렬 속에서, 어떤 극적인 반전 속에서 규정성을 얻는다.

그러나 니체의 규정 개념은 헤겔의 규정 개념과 두 가지 점에서 멀어진다. 먼저 규정이 서로 갈등하는 복수의 심급 사이에서 다층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중층적 결정이라는 프로이트의 독특한 규정 개념이고, 그것이 함축하는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개념이다. 니체에게서도 이미 하나의 규정은 단일한 심급으로 수렴되지 않는 이질적인 힘들 간의 상호 투쟁과 왜곡을 전제한다. 다른 한편 규정이 가상의 생산이라면, 이렇게 생산된 가상은 진리의 사례도, 진리의 연출도 아니다. 거꾸로 진리는 가상의 한 사례나 연출에 불과하다. 이는 텍스트의 세계에서 기의가 기표의 유희 속에서 생산되는 것과 같다. 여기서는 기의가 기표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표가 기의를 연출, 생산한다. 기표 이전의 기의란 없다.

28) F. Nietzsche, 같은 책, 853항 4절, 578면.

29) F. Nietzsche, 같은 책, 853항 3절, 577-578면.

30) 헤겔의 『정신현상학』에 등장하는 규정 개념,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연출과 장면화(Beispielen, Darstellung) 등의 개념을 충실하게 번역하기 위해서는 데리다의 쓰기(écriture)나 들뢰즈의 劇化(dramatisation) 개념으로 옮길 가능성에서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딱딱한 일상적 현실의 세계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꿈의 세계에서는 어김없는 말이다. 기표가 기의를 연출, 생산한다는 점에서 텍스트의 세계는 꿈의 세계와 한없이 가까워진다. 또 이 점에서 프로이트의 ‘규정’은 니체의 ‘의지’와 거의 구별되지 않는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에 의해 지배되는 심리적 영역에서 모든 규정은 어떤 전치, 압축, 왜곡, 위장, 방어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어떤 장면화이다.

가령 『꿈의 해석』에 등장하는 “요셉 삼촌의 꿈”으로 돌아가 보자. 이 꿈은 프로이트의 두 대학 동료가 교수에 임용되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결함 때문이고, 따라서 자신은 유대인일망정 아무런 결함이 없으므로 교수에 임용될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무의식적 욕망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 꿈에 등장하는 요셉 삼촌은 “한 원판에 여러 명의 얼굴을 사진 찍는 갈톤의 조합 사진술”³¹⁾과 같이 프로이트의 두 동료 R과 N을 압축하고 있는 어떤 종합적인 인물이다. 머리가 모자란다는 점에서 R을, 어떤 법률적 소송에 말려들었다는 점에서 N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프로이트의 숨은 욕망이 두 가지 결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요셉 삼촌에게 전치되어 장면화되는 것이다.

이런 압축과 전치는 무의식 쪽에서 의식 쪽으로, 의식의 억압을 피해 연출되는 가상화이다. 그러나 이런 가상화의 작업은 의식 쪽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방어와 저항 때문에 또 다시 심화된다. 그 저항은 “꿈-해석”에 대한 저항이고, 이 저항은 권력관계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표현의 검열에 해당한다. 하지만 “검열이 엄격할수록 위장(Verkleidung)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럴수록 원래 의미의 흔적(die Spur der eigentliche Bedeutung)을 찾을 수 있도록 독자를 도와주는 수단은 종종 기지를 더한다.”³²⁾ 동료에 대한 부당한 폄해를 내용으로 하는 장면 연출은 의식 쪽의 반발을 상쇄하기 위해 자신과 모순되는

31) S. Freud, *Die Traumdeutung*, Gesammelte Werke II/III(Frankfurt am Main: Fischer, 1942), 144면.

32) S. Freud, 같은 책, 148면.

새로운 은폐 요소를 끌어들인다. 그것은 문제의 꿈속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강렬한 애정으로 나타난다. 이 거짓 애정은 원래의 장면에 대한 해석을 방해하기 위한 왜곡으로서, “여기서 왜곡(Entstellung)은 의도적인 것, 변장(Verstellung)의 수단”³³⁾에 해당한다.

꿈속에서, 나아가 무의식적 욕망에 의해 삼투된 의식의 흐름 속에서 현상하는 것은 자신의 고유한 의미와 무한히 분리되어 있는 기표이다. 그것은 전치와 압축, 왜곡과 위장, 자기 은폐와 말소 등의 절차를 거쳐 원래의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린 흔적이다. 데리다가 말하는 텍스트의 세계에서 일정한 규정성을 띠고 등장하는 모든 기호와 형태는 이런 프로이트적 의미의 흔적에 가깝다.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데리다가 말하는 차연, 쓰기, 혹은 기록은 이런 흔적을 생산하는 프로이트적 의미의 중층적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의미와 형상을 개방하는 최초의 종합이나 규정을 가리킨다.

VI. 원초적 흔적으로서의 차연과 쓰기

최초의 종합, 원초적 규정, 원초적 기록. 이것은 다시 흔적이라 불리고 더 정확히 원초적 흔적이라 불린다. 그러므로 중층적 규정과 사후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데리다의 텍스트에서 흔적이란 말은 다의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원초적 기록에 해당하는 흔적과 그 기록이 생산하는 흔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이런 대목을 읽어보자.

(가)차이들은 요소들 사이에서 나타난다. 혹은 오히려 차이들이 그 요소들을 생산하고 그렇게 요소로서 모습을 드러내게 만들며 또한 어떤 ‘텍스트들’, 어떤 흔적들의 연쇄와 체계들을 구성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자국(empreinte)과 흔적이라는 이 특수한 지대 안에서, ‘어떤 선-체험’의 시간화(temporalisation d'un vécu) 안에서 일어는 바, 이 체험은 세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세계’ 안에 있는

33) S. Freud, 같은 책, 147면.

것도 아니며, 소리도 아니고 빛도 아니며, 시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 ‘안’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연쇄와 체계들은 오로지 이 흔적이나 자국의 직물 안에서만 그려질 수 있다. (나)나타나는 것 (l'apparaissant)과 나타남(apparaître) 사이(세계와 선-체험 사이)의 차이, 그 전대미문의 차이는 모든 다른 차이들의 조건, 모든 다른 흔적들의 조건이며 게다가 그 차이 자체가 이미 어떤 흔적이다. (...) ‘흔적은 사실 의미 일반의 절대적 기원이다. 이는 의미 일반의 절대적 기원이 없다는 것과 같다. 흔적은 나타남과 의미작용 일반을 개방하는 차연이다.’ 차연은 살아 있는 것을 살아 있지 않은 것 위로 분절화하는 것, 모든 반복의 기원이자 이상성(idéalité)의 기원이고, 그런 한에서 차연은 현실적이 아닌 것처럼 관념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감성적이 아닌 것처럼 지성적인 것도 아니며, 불투명한 에너지가 아닌 것처럼 투명한 의미작용도 아니므로 ‘어떠한 형이상학의 개념도 그것을 기술할 수 없다.’ (다)하물며 차연은 모든 감성적 영역들 사이의 구별에 선행함으로, 가령 청각적인 자국과 시각적인(도형적인) 자국 사이에 어떤 위계를 설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인가? 도형적인 영상은 보이지 않는다. 청각적 영상 들리지 않는다. 목소리의 충만한 단위들 사이의 차이는 들리지 않는 것으로 남아 있다. 기록물 안의 차이 역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남는다.³⁴⁾

데리다의 탈-형이상학적인 텍스트론을 집약하는 이 어렵고 긴 대목은 소쉬르가 말하는 청각적 영상(image acoustique)과 정신적 흔적에 대한 주석에서 출발한다. 소쉬르는 이렇게 말한다. “언어 기호가 결합시키는 것은 한 사물과 한 명칭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청각 영상이다. 이 청각 영상이란 순전히 물리적인 사물인 실체적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의 정신적 흔적이다.”³⁵⁾ 이 정신적 흔적은 어떤 흔적인가? 그것은 언어에 대하여, 경험에 대하여, 현상 일반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런 물음을 위해서 먼저 (가)에 등장하는 ‘텍스트’라는 말에 주목해보자. 이 말에는 따옴표가 붙어 있는데(원문에는 이탤릭 문자로 표시),

34) J. Derrida, 같은 책, 95면. 단락 구분은 필자 보충.

35) 페르디낭 드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옮김(서울: 민음사, 1990), 84면.

이는 일상적이고 통속적인 의미의 텍스트를 표시하기 위한 의도로 읽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일상적인 의미의 텍스트는 ‘흔적들의 체계와 연쇄들’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그 아래 다시 ‘흔적이나 자국의 직물’이라는 말이 나온다. 데리다가 강조하는 것은 이 두 말의 차이이다. 텍스트와 직물, 체계나 연쇄와 직물의 차이. 이 차이가 중요한데, 이 차이는 (나)에서 ‘나타나는 것과 나타남 사이의 차이’로 풀이된다.

이런 구분법에서 텍스트는 차이들에 의해 형성되고 구성된다. 반면 직물은 흔적이나 자국으로 직조된다(‘흔적’과 ‘자국’은 ‘차이’와 마찬가지로 소쉬르의 용어이다). 이때 텍스트를 구성하는 차이들은 어떤 생산된 차이들이다. 그것은 다른 것과 구분되는 변별적 특징들을 가리키며, 그런 의미에서 다시 흔적들이라 불린다. 반면 직물을 엮어 가는 흔적은 생산된 차이가 아니라 생산하는 차이이다. 차연은 이 생산하는 차이나 흔적에 대한 이름이다. (나)에 나오는 “흔적은 나타남과 의미작용 일반을 개방하는 차연이다”라는 말은 이런 구분법 위에 언명되고 있다. 흔적으로서의 차연, 차연으로서의 흔적은 의미의 차원 일반을 개방하는 최초의 규정이자 종합이다.

그러므로 이 대목을 읽을 때는 두 차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는 현상적 차원이고 이는 (통속적 의미의) 텍스트라 불린다. 텍스트는 서로 구별되는 요소들 사이의 변별적 차이들에 의해 형성된다. 그 변별적 차이들이 텍스트들 혹은 ‘흔적들의 연쇄와 체계들’을 형성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변별적 차이들 배후에는 이 차이들을 생산하는 차이(차연)가 있다. 현상적 차원이 텍스트라면, 그 배후의 차원은 직물이라 불린다. 텍스트가 ‘나타나는 현상’의 차원이라면, 직물은 ‘현상의 나타남’을 개방하는 차원이다. 텍스트를 구성하는 흔적은 나타나는 현상에 해당한다. 반면 직물을 이루는 흔적은 현상의 나타남을 개방하는 원초적 흔적(archi-trace)이다. 고전적인 의미의 텍스트와 구별되는 데리다적 의미의 텍스트는 이 원초적 흔적이 형성하는 직물을 가리킨다.

소쉬르가 말하는 정신적 흔적은 결국 그렇게 원초적 흔적이란 말

로 번역된다. 수식어 없이 흔적이라 표기되기도 하는 이 원초적 흔적은 차연과 대체관계에 있고 원초적 기록 혹은 쓰기(*archi-écriture*)와 동의어이다.³⁶⁾ 현상적 차원의 경험, 현상적 차원의 기록과 흔적 배후에는 원초적 기록이 있다. “원초적 기록은 말(*parole*)의 첫 번째 가능성이고 다시 좁은 의미의 ‘기입’(*graphie*)의 가능성이다. (...) 이 흔적은 일차적 외면성 일반의 개방성이며 살아 있는 것과 그것의 타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안과 밖 사이의 수수께끼 같은 관계, 곧 간격내기(*espacement*)이다.”³⁷⁾

차연 혹은 쓰기가 벌이는 간격내기나 사이내기는 위의 인용문 (가)에 나오는 ‘어떤 체험의 시간화’와 유사한 사건이다. 그것은 서로 대립하는 시간적 종합과 공간적 종합 이전의 원초적 종합에 해당하는 어떤 사이내기를 가리킨다. (다)에서는 소쉬르가 언급하는 청각적 각인(자국)이나 영상이 다시 그런 간격운동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각인이나 영상은—칸트의 도식처럼—단지 경험적 차원에 속하는 것도, 단지 선험적 차원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현실적이 아닌 것처럼 관념적인 것도 아니다. 감성적이 아닌 것처럼 지성적인 것도 아니며, 불투명한 에너지가 아닌 것처럼 투명한 의미작용도 아니다.” 그것

36) J. Derrida, 같은 책, 88면: “왜냐하면 원초적 기록, 차연의 운동, 환원 불가능한 원초적 종합은 하나의 단일하고 동일한 가능성 안에서 시간화와 언어를 동시에 열어놓으므로 모든 언어학적 체계의 조건에 해당하고, 그런 한에서 언어학적 체계 자체의 일부가 될 수 없으며 그 체계의 장(場)에 속하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장에서 쓰기, 차연, 종합, 그리고 규정 사이의 등가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밖에 이 인용문에 등장하는 시간화(*temporalisation*)라는 말은 공간적 종합, 공간내기에 대립하는 시간적 종합, 시간내기(*temporalisation*)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대립 이전에 성립하는 어떤 간격내기나 사이내기로 새겨야 할 것이다.

37) J. Derrida, 같은 책, 103면. 여기에 등장하는 간격운동(*espacement*)도 또한 시간과 공간의 대립 이전에 성립하는, 어떤 원초적 종합에 해당하는 간격내기나 사이내기로 새겨야 할 것이다.

은 형이상학적 이항대립의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립적 이항 이전의 종합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대립적 이항의 공통된 뿌리이다. 형이상학적 이분법 이후에 오는 종합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오는 종합. 이 원초적 종합은 시-청각적 각인이나 영상으로 귀결된다. 경험적인 것도 아니고 선험적인 것도 아닌 이 영상은—여전히 칸트의 도식처럼—어떤 ‘근원적인’ 시간성을 띠고 있다.

이 시간화하는 규정과 종합, 혹은 공-간화하는 생성. 이것이 차연이다. 차연 혹은 원초적 기록(쓰기)은 특정한 현상을 나타나게 하는 동시에 그 나타남을 일정한 범위 안에 제한하는 도식(혹은 각도나 구도)이며, 그 도식이 발생하는 원초적 사건이다.³⁸⁾ (나)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차연적 종합은 다시 ‘분절화’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원초적 흔적이 나타남과 의미작용 일반을 개방하는 차연이라면, 차연을 통한 개방운동은 분절화하고 조직하는 종합이다.

이 분절화 혹은 조직화는 두 종류의 흔적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종합이다. (나)에서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분절화는 “살아 있는 것과 살아 있지 않은 것” 사이에서 일어난다. 이때 살아 있는 것은 경험적 차원에서 현전하는 흔적을 가리킨다. 반면 살아 있지 않은 것은 현전화하거나 현재화할 수 없는 흔적들, 따라서 절대적 과거에 속하는 흔적들에 해당한다. 원초적 흔적(원초적 기록, 쓰기, 차연, 원초적 이미지, 간격내기, 사이내기, 대리적 보충 등)은 이 두 흔적들 사이의 종합과 분절화를 가리킨다.

이런 원초적 흔적은 경험적 현상의 유사-선험적 가능조건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타남 자체이다. 살아 있는 것, 현재적인 것은 원초적 흔적에 힘입어 비로소 특정한 형태를 띠고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는 현전화 불가능한 흔적들, 죽어 있는 흔적들이 개입하고 있다. 이 죽어 있는 흔적들의 보충이 없다면 살아 있는

38) 데리다의 쓰기, 차연, 흔적 등의 개념이 갖는 위상을 충분히 가시화시키기 위해서는 들뢰즈의 생성이나 사건 등의 개념 쪽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흔적들도 발생할 수 없다. 죽어 있는 흔적들은 차연적 종합과 분절화를 통해 현전의 발생에 참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발생과정에서 사라진다. 원초적 기록, 그 차연적 기록은 현전화 불가능한 흔적의 기입인 동시에 말소이다. 현전의 형식 안에 존재하는 사태, 현상적 차원의 모든 사태와 차이는 이 이중적 기록을 가능조건으로 한다.

데리다는 계속 말한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대상도 현전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 살아 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을 서로 엮고 보충하는 차연의 종합과 분절화 이후에 온다. “우리는 바깥이란 것을, ‘공간적’이고 ‘객관적’인 외면이란 것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친숙한 것인 양 마주한다. 하지만 이 외면도 文(gramme)이 없다면, 시간화에 해당하는 차연이 없다면 나타날 수 없다. 현전적인 것의 의미 안에 타자의 비-현전이 기입되지 않는다면, 죽음에 대한 관계가 살아 있는 현전의 구체적인 구조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면 바깥은 나타날 수 없다.”³⁹⁾

그러므로 세 종류의 흔적 혹은 기록이 있다. 먼저 통속적인 의미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흔적이 있다. 그것은 나타나는 현상에 해당하는 흔적, 살아 있는 흔적이다. 하지만 이 흔적을 나타나게 하는 사건은 그 흔적이 기록되면서 지워지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현전에 미치지 못하는 흔적이다. 존재자는 모두 그런 자격의 흔적이거나 기록들로 이루어진 텍스트이다. 다른 한편 절대적 과거에 속하는 흔적, 결코 기억하거나 현전화할 수 없는 흔적이다. 앞의 흔적이 살아 있는 흔적이라면, 이 흔적은 죽어 있는 흔적이다. 이 죽어 있는 흔적은 살아 있는 흔적에 대해 어떤 절대적 타자이지만, 그것 역시 역동적으로 어떤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 텍스트성에서 비롯되는

39) J. Derrida, 같은 책, 103면. 여기서 차연, 쓰기, 원초적 흔적 등의 동의어로서 文(gramme)이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자. 데리다의 문자학(grammatologie)은 문자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실증과학이 아니라 문자를 포함한 경험적 현상 일반을 개방하는 최초의 종합과 분절화인 원초적 기록에 대한 사유이고, 이 점에서 차라리-하이데거적으로 해석된-칸트의 도식론에 가까울 것이다.

흔적, 다시 말해서 앞의 두 종류의 흔적을 잇고 엮는 흔적, 종합하는 흔적이 있다. 이것이 원초적 흔적 혹은 원초적 기록이다. 텍스트를 구성하는 흔적은 이 제3의 흔적을 통해 비로소 분절화되고 기록된다. 하지만 이 원초적 기록과 그것을 가져오는 상호 텍스트성은 텍스트의 기록과 더불어 말소되는 사건이다.

데리다가 규명하고자 하는 (글)쓰기는 이 제3의 기록이다. 그것은 텍스트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수평적 구도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텍스트의 절대적 과거로 향하는 쓰기, 죽음과 망각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도의 쓰기다. 하지만 해체론의 관점에서 모든 수평적 구도의 쓰기는 이미 수직적 구도의 쓰기를 전제한다. 모든 언어가 어떤 ‘수행적 구조’를 함축하고 있다면, 그 수행적 구조를 낳는 사건은 역시 이 수직적 구도의 쓰기나 기록일 것이다. 김수영은 그런 의미의 글쓰기를 “죽음의 고개를 넘어가는 기술”이라 한 적이 있다. 이 기술이 원초적 기록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시 기형도의 시어(詩語)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그것은 “입 속의 검은 잎”(잎 속의 잎, 입속의 입)이다.⁴⁰⁾

참고문헌

-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9
 김상환, 『해체론 시대의 철학』, 문학과지성사, 1996
 김상환, 『예술가를 위한 형이상학』, 민음사, 1999
 김상환,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 창비, 2002
 김상환, 『들뢰즈의 CsO론』, 『안과 밖: 영미문학연구』제22호(2007년 상반기)
 박상규, 『미학과 현상학』, 개정·증보판, 서울: 한신문화사, 1997
 소쉬르, 『일반언어학 강의』, 최승언 옮김, 서울: 민음사, 1990

40) 이 논문은 『문학관』제6호(2003년 봄)에 실렸던 짧은 글 『텍스트의 배후: 해체론적 기록』을 보완, 개작한 것이다.

- Barthes, R., *Le bruissement de la langue*, Paris: Seuil, 1984
- Derrida, J., *Positions*, Paris: Minuit, 1972
- Derrida, J., *Marges de la philosophie*, Paris: Minuit, 1972
- Derrida, J., *Ecriture et différence*, Paris: Seuil, 1967
- Derrida, J., *De la grammatologie*, Paris: Minuit, 1967
- Derrida, J., *Limited Inc.*, Paris: Galilée, 1990
- Derrida, J., *Force de loi*, Paris: Galilée, 1994
- Derrida, J., *Mémoires pour Paul de Man*, Paris: Galilée, 1988
- Freud, G., *Die Traumdeutung*, Gesammelte Werke II / III, Frankfurt am Main: Fischer, 1942
- Hegel, G.W.F., *Phänomenologie des Geistes*, Hambourg: Felix Meiner, 1952
- Ingarden, R., *Das literarische Kunstwerk*, 2판, Tübingen: Niemeyer, 1960
- Man, P. de., *Allegory of Reading*,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9
- Nietzsche, F., *Der Wille zur Macht*, Stuttgart: Kröner, 1964
- Saussure, F. d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ris: Payot, 1972

ABSTRACT

Derrida and Text

Kim, Sang-Hwan

What is the status and meaning that the concept of text has in the deconstruction of Derrida? For this question, I will pass through six phases. 1) At first, I will reexamine the etymological meaning of text, its metaphorical relation with other words, and its constitutive elements. 2) I will compare deconstructive concept of text with Husserl and Ingarden's phenomenological concept in order to see their convergence and divergence. 3) I will compare deconstructive concept of text with Barthes' concept in order to make clear its distinctive character and its relation to modern literary criticism. 4) I will explain the idea of intertextuality that is implied in the deconstructive concept of text, commenting on the deconstructive translation of Freud's psychoanalytic text. 5) I will clarify the way in which the psychoanalytic concept of overdetermination turn into the deconstructive idea of trace, retracing a short history of the idea of determination from Hegel to Derrida via Nietzsche. 6) Finally I will explain the complex meaning that has the words such as trace, archi-trace, écriture, archi-écriture, différance, etc., these words being the most important and decisive elements which constitute the deconstructive concept of text.

Keywords: Text, Derrida, Deconstruction, Intertextuality, Trace, Archi-trace, Writing, Différance, Determination.